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9월 27일 연중 제26 주일

예수님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뼈 때리는 비유 하나를 던지신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한다.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물으신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답한다. "말아들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별로 기쁘지 않다. 그들은 '율법의 달인'이자 교리의 엘리트들이었다. 스스로 하느님 말을 제일 잘 듣는 '둘째 아들'이라 믿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율법도 모르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포장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진짜 행동하고 있는가?"이다.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영적 입 털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레나 성사, 서원이나 서품을 통해 엄숙하고 단호하게 ‘예!’ 라고 대답은 모두가 잘한다. 믿습니다! 굶어버립니다! ‘신의 의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말 뿐인 사람들이 참 많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다. 사제인 나도 그 당시의 사제들과 원로들처럼 작은 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

말아들은 솔직하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일을 한다. 세리와 창녀들도 솔직하였다. 시대의 죄인으로서 솔직한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본당신부가 신자들에게 원 일을 부탁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지만, 결국 일을 맡게 되고 맡은 일은 열심히 해 내는 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빛이 난다. 솔직히 마음이 약해서인지 신앙심이 깊어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큰아들이 될 가능성이 나 보다는 클듯하다.

오늘 1독서에서 회개와 구원의 가르침을 듣는다. "죄인이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하느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 한때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행들을 꺾고 주님 쪽으로 돌아서면 된다. 과거의 "흑역사"는 탕감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서늘하다. 평생 착하고 정직하게 살던 의인이라도, 마음이 변해 불의를 저지르면 그동안 쌓아온 '정의의 적립금'은 날아가고 죽는다고 하신다.

하느님이 보시는 건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하느님을 향해 잘 가다가 애먼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동안 걸어온 길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질 못한다. 사실 사랑했던 사람이 변심할 때 더 아픈 법이다. 그것이 영혼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두고 졸면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 필리피서 (2장)는 하느님이 직접 보여주신 '대반전의 유연함'을 제시한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머리를 들고 권위를 내세운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느님이 나약하고 찌질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역사상 이보다 극적인 '전향'이나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방향 전환'은 없었다. 하느님이 왜 이런 우리수를 쓰셨을까? 오직 하나, 사랑하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였다. 자존심, 신분, 권위까지 다 던져 버리신 그 한계 없는 유연함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자기가 맞다고 고집부리는 오만함과 완고함을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 영적으로 빼끗하고, 헛발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자책할 때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곧은길만 걷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는 "네가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든,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다. 거기서 일어나 나를 향해 방향만 돌려라."라는 격려다. 어디로 돌아서야 할지 막막한가? 걱정 마시라. 생명의 길이신 그분께서 친히 경로를 재탐색해 주실 것이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하느님은 찢리는 양심,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자연, 성경 한 구절, 혹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수많은 선한 채널들이 이미 우리 곁에 열려 있다.

내 고집과 자만심은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영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 들로부터 신속하게 행들을 꺾어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우리였으면 한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느님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마음먹은 지금이 바로 돌아설 시간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해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9/27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김화룡(수산나)
	황정순(크리스티나)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뉴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26 년 10/ 4	김종휘(루카)	김희경(안젤라)	정한나		이춘자(희순루시아)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	영어권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

공동체 소식



9 월 25 일 (금) 추석위령미사가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준비해 준 교우분들 감사합니다.

◎꼬미시움 월례모임
▶일시: 9 월 27 일(일) 오후 12 시 30 분 신관 1 호

◎환영 올드레아
▶일시: 9 월 27 일 오후 10 시 30 분 신관 1 호
교육수로 축하 및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꾸리실리스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빈첸시오 월례모임
▶일시: 9 월 27 일 9 시 미사 후 신관 5 호

◎구역반장모임
▶일시: 9 월 27 일(일) 9 시미사 후 10 시 30 분-신관 4 호
각반 반장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Eucharistic Adoration(성체조배)
영어권신자들이 이끄는 성체조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일시: 10 월 4 일(일) 아침 10 시 15 분 본당

◎선교바자회
10 월 18 일(일)에 선교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두진(바오로)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꽃다발
10 월 19 일은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영적꽃다발 기도를 10 월 11 일까지 현관에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성경필사
신, 구약 성경 중 읽고, 쓰며, 묵상하고 싶은 말씀 한권을 선택, 필사해서 12 월 13 일까지 제출바랍니다.

◎2027 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 10 월까지
▶성인 교리시간: 주일 오전 9 시 30 분
▶청년 교리시간: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감사드립니다
▶본당의날 애써주신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리고 배추겉저리와 잡채를 도네에선해준 서초가든에 감사합니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이치섭(바오로), 이옥희(엘리사벳), 조현정(에스더), 이명열(율리안나), 주윤철(요셉), 한명수(아오스딩마리아), 이지훈(베드로)

■감사헌금:
○교무금 \$ 950.00 ○주일헌금 \$ 1,804.00
○감사헌금 \$ 100.00 ○레지오봉헌 \$ 410.00

『 2026년 9월 27 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유명주(마가렛), 엄광식(토마스), 송영현, 앤디킴(안드레아), 민충식, 황명훈, 탐 박(토마스), 소피아 박

■ 연미사
최규식(그레고리오)몬시놀, 이금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콜라따), 이선애(마틸다),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김진봉(베드로), 조문기(샤스땅야고보), 주영선(소피아), 이동준(베드로), 김성애(마리안나), 강성호(바오로), 김구을(아네스), 이계봉(마리아), 정영순(아가다), 베니지(베네딕토), Pamela Brown(파멜라 브라운)

9월 29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콜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9월30일(수) ~ 10월3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10월 1일(목): 김복순(도로테아), 한씨사촌할머니, 할아버지, 김창제(이냐시오) (연미사)

10월 2일(금): 장정원(율리안나)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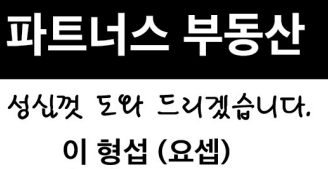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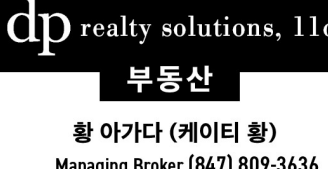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배 페인링
배 흥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Michael Zyung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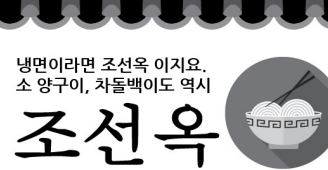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
에터미
최 켜마
(847) 414-0863



B&W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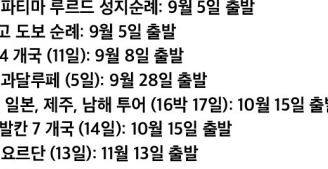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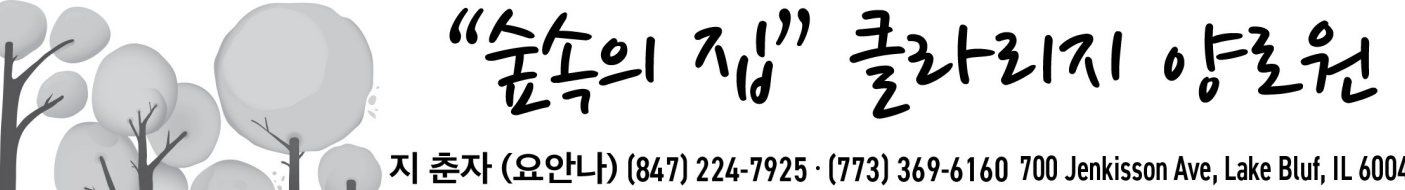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젼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월):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월):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월):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9 월 27 일 연중 제 26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8,25-28
◎ 화답송

주 님, 당 신 의 자 비 기 억 하 소 서.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1-11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복음 마태오 21,28-32
◎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44 봉헌성가 415
성체성가 504 파견성가 286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